유관기관 동정

과 학 기 술 부

신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

과학기술부는 2003년 8월 27일 원자력법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하여 원자로계통, 방사선 방호 등 각 기술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이번에 새롭게 재구성된 위원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주요정책,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 · 허가 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심의 · 의결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기 : 2003. 8. 27 ~ 2006. 8. 26

분야	성 명	직 위	학 력
원자로 계 통	오세기 ('45.9)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 ■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서울대, 카나다 맥마스터대 공학박사
방사선 방 호	이재기 ('50.10)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서울대, 미국 일리노이대 공학박사
정책 제도	이성복 ('53.6)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외대, 미국 시러큐스대 박사
부지 구조	장승필 ('43.6)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 소장 ■대한지진학회장	서울대, 독일 슈투트가르트대 박사
원자력 방 재	홍석일 ('50.4)	■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센터장 ■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서울대 의학박사
원자력 전문가	김숭평 ('48.8)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조선대, 한양대 원자력공학박사
안전규제 전문기관	은영수 ('45.9)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서울대, 미국 미시간대 공학박사
여성 전문가	최은경 ('58.11)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 과장 ■현 원자력안전전문위원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학박사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원자력안전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의 향상은 물론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제고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과기장관 제47차 IAEA 총회참석 원자력 외교활동

박호군(朴虎君) 과학기술부장관은 2003년 9월 13일~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7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핵비확산 체제강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원자력장관 및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가졌으며, 오스트리아와는 한 · 오 과학기술장관 회담을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상호간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EA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국제 핵비확산 체제강화를 위해 '97년부터 발효된『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금년중으로 비준할 계획임을 알리고 회원국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결과, 미국, 일본 및 IAEA 당국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 추가의정서에는 현재까지 74개국이 서명하였고 일본, 카나다, 중국 등 35개국이 비준하였다.

또한 양국간 원자력장관 회담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및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등 원자력기술의 공동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금년 한 · 오스트리아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한 · 오 과학기술장관 회담은 상호간 과학기술협력 파트너 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84년이후 현안 사항이었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측이 초안을 작성, 협의키로 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과학기술 외교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R&D허브의 핵심이 되고 원자력 G5군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분야 국제학술회의「MIGRATION '03」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안전하다고 발표

세계 각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전성의 최신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해보는 제 9회 지하 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와 핵분열생성물의 이동 및 화학적 거동 (Chemistry and Migration Behavior of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in the Geosphere) 국제학술회의인 「MIGRATION '03」이 2003년 9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폐막되었다.

동 학회에 참석한 국내외 270여 명의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의 안전성에 대한 토의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석탄에 있는 방사선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므로 국민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국제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처분분야의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부, 유럽공동체(EC), 독일 칼스루헤 연구소(FZK),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원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 장인순)가 한국원자력학회, 한국화학회, 한국토양지하수환경학회, 한국방사선방호학회 및 한국환경공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학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환경영향 연구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서 2001년 9월 프랑스와 경합하여 유치한 대회이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을 비롯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세계 27개국 27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에 처분하였을 때, 폐기물에 함유된 방사성물질들이 어떻게 토양이나, 암석과 반응하고, 주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70여 편을 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의학물리사 인증제도 시행

과학기술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조사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장비의 취급, 선량측정,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학물리사" 인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치료방사선기기의 품질 관리 등 방사선안전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전문인에게 부여하여 국내 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시행될 인증제도를 통하여 인증자에게 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된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치료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에 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될 인증제도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치료방사선이용에 따른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9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

「제9회 원자력안전의 날」기념식이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박호군 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한 원자력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4일(목)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무총리 치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유공자를 격려하였고, 또한 안전유공자 42명에 대한 정부포상(근정훈장 : 한국과학기술원 장순흥 교수)이 있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그리고 국민의 참여' 라는 주제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의 특별강연과 원자력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원자력안전학교 연내 설립

세계 최고수준인 원자력 안전분야의 국내기술 수준 유지와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은영수) 내에 원자력안전학교' 가 개설된다.

국제수준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기반 체계를 구축을 위한 원자력안전학교의 교육대상은 ▲원자력안전 분야 종사자 ▲원자력 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경영자(CEO)등 이다.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분야 CEO 과정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국내 2천여개 업체의 최고경영자 및 간부와 원자력 발전소(현재 18기)의 장들과 중역, 과기부 과장급 이상이면 수강할 수 있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현재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내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가운데 10% 정도는 안전기술을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 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원자력 안전학교 수료 여부를 앞으로 원자력 안전 검사관(현재 300여명)의 자격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올해 원자력분야 교육예산 가운데 5억~10억원 가량을 원자력안전학교에 투입할 방침이다.